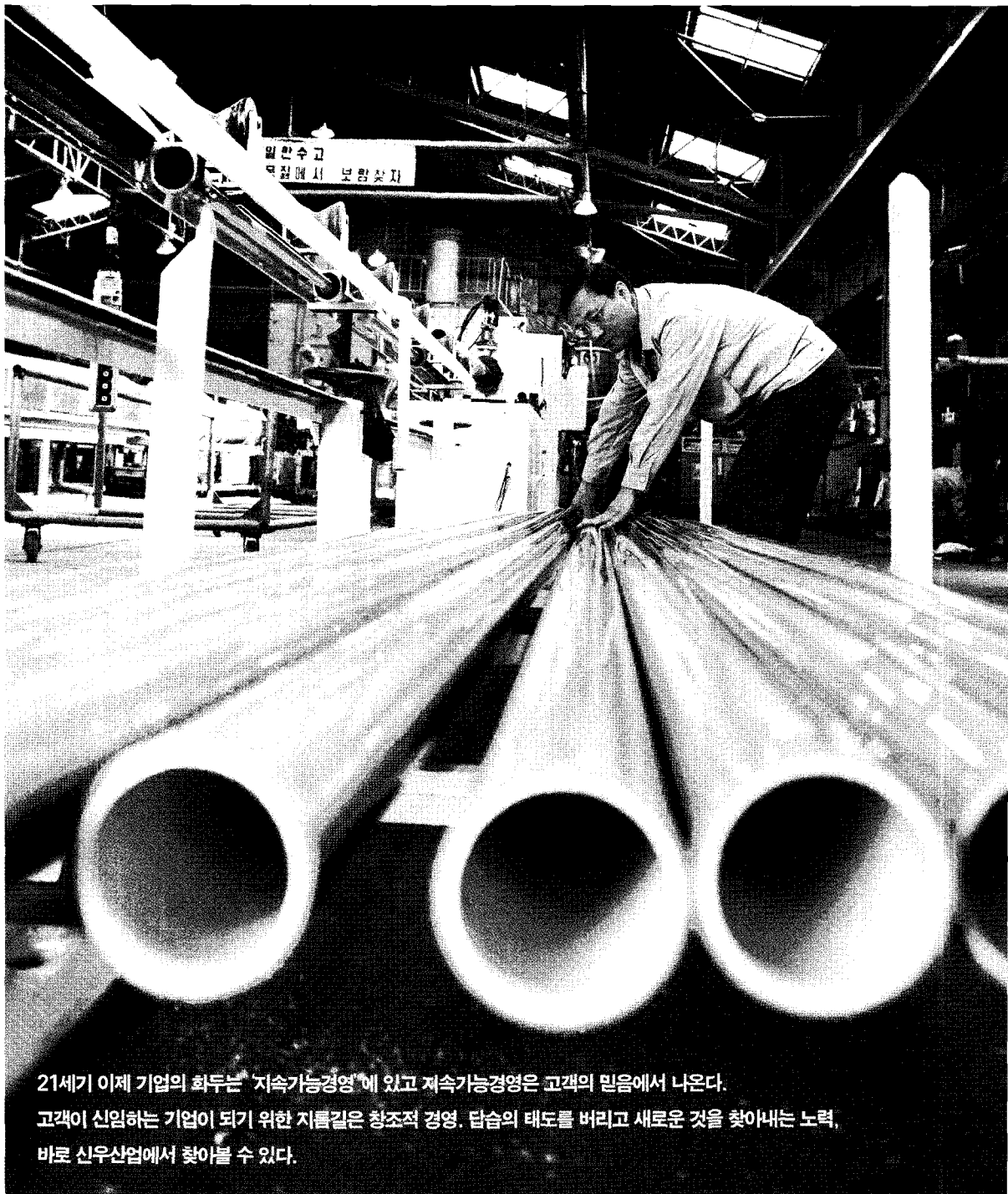


# 40년 전통으로 파이프의 역사를 쓰는 신우산업



21세기 이제 기업의 화두는 '지속가능경영'에 있고 지속가능경영은 고객의 믿음에서 나온다. 고객이 신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한 지름길은 창조적 경영, 답습의 태도를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노력, 바로 신우산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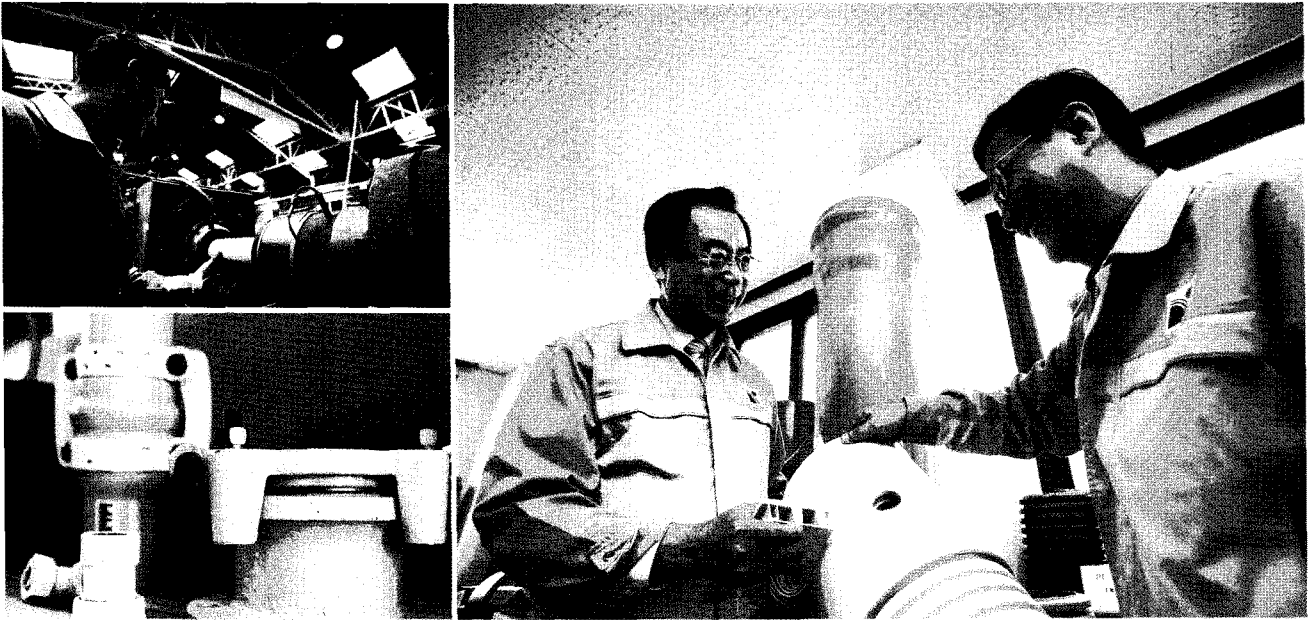
1953년 5월 29일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등정했던 사람은 뉴질랜드 출신 에드먼드 힐러리경(卿)과 네팔 출신 세르파인 텐징 노르가이의 후손들이었다. 작년 5월 31일, 해발 8,400m 히말라야 '로체샤르' 정상을 밟은 엄홍길 대장은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6좌를 완등한 산악인이 되었다. 최초, 그 이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영예로운 훈장이다.

1968년 12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임대공장에서 시작한 신우산업은 중소기업으로서는 최초로 대기업들이 준비한 PVC 파이프 산업에 뛰어든 이후 40년간 한국 파이프 산업의 한가운데

에 있었다.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신우산업의 역사는 곧 한국 파이프 산업의 역사와 다름없었다.

## 40년 역사가 말해주는 기술력

"HI-VP 내충격용 수도관은 2층 구조로, 외부는 충격을 보호하고 내부는 수질을 보호하는 2중 보호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소재는 고분자 합성수지의 엄선된 원료를 사용하여 내부식성에 반영구적이지요, 고강도 PVC 이중벽관은 신우가 최초로 개발한 확관 구조를 이용하여 시공 자체가 매우 용이하고 안정적인



김홍기 신우산업 대표(좌측)

니다. 또한 수도관에 공압출기술을 이용하여 은나노 내충격 항균 수도관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신우산업의 주력 상품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에 제품 개발을 담당하는 솔루션센터 박용범 부장은 신우산업 제품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실의 모든 제품이 신우산업만의 기술력이 녹아 있는 주력 생산품이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자사 제품에 대한 자부심에서 나온 말이라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신우산업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그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으로서 최초로 PVC 파이프 생산에 뛰어든 신우산업은 창업 후 10년 동안 빗물받이 등 건축용 자재를 생산하며 내실을 다졌고, 그 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PVC 수도관, 위생관, 전선관 등 전 제품이 KS인증을 받으며 기술력을 인정받기에 이른다. 이를 계기로 1982년 그동안 뿔뿔이 흩어져 있던 공장 세 곳을 인천시 당하동에 통합하면서 종합 합성수지관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신우산업은 1980년대를 맞이하며 IT분야를 미리 예측하고 통신 보호관을 생산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납품하는 등 한 걸음 빠른 대응으로 업계를 주도하고자 늘 노력해온 기업입니다.”

지난 신우산업의 역사가 보여주듯 김의승 영업이사는 친환경제품시대를 맞이하며 신우의 최근 전략은 경쟁 회사들에게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제품 개발에 있다고 강조했다.

### 파이프 선도 기업의 소명감으로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전 제품을 KS화 시키기 위해 보냈던 3년 정도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회사 운영의 어려움을 겪

으며 품질이나 가격이나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오직 답은 하나 아니겠습니까?”

신우산업 김홍기 대표는 경영자로서 때론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신우의 제품이 가장 좋다고 인정해줄 때의 희열을 잊지 못해 지금도 더 나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김홍기 대표는 파이프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우산업만이 아닌 모든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소명감으로 1992년 KS표시허가업체 협의회 대표 재직시 사장단을 일일이 찾아가 6개월간의 설득 끝에 전체 품질을 향상시키는 일을 해내기도 했다.

“신우는 1960년대 대표적 벤처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벤처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 늘 ‘가장 이상적인 관은 무엇일까?’ 라며 스스로에게 되물습니다.”

최고의 자리에서도 더 높이 올라서기 위해 신우산업은 현재 미국의 유명 대학과 공동으로 신소재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개발이 완성된다면 획기적인 파이프 개발로 또 한 번 시장을 선도하는 리딩기업이 될 것이다.

“1990년대 벤처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일시에 몰락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과대 포장했기 때문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를 주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기업이 신뢰를 주지 못하면 그 다음은 무엇이 남겠습니까?”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김홍기 대표가 40년간 가슴에 품은 말이다. 물이 귀한만큼 물을 나르는 파이프 역시 귀하고, 귀한 파이프를 잘 만들기 위해 더 나은 기술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 그것이 김홍기 대표가 품은 천명이다. ☺